

헤르만 바빙크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해: 창조회복으로서의 구원에 중점을 두고

조 윤 호

그리심교회 담임목사, 조직신학

1 들어가는 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이해는 교부들의 신학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기독교론과 구원론에서 그 내용이 빠지지 않고 소개되고 있다. 교부들의 시대는 신앙을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신학의 특징에 따라 삼중직이 포괄적으로 소개된다.¹ 여기서 선지자직은 제사장직 안에 묶어진다. 그리고 왕직과 함께 두 직분이 논해지면서 제사장직이 강조된다. 이후 종교

* 논문투고일: 2021.10.26.

논문수정일: 2021.12.11.

게재확정일: 2021.12.20.

1 P. Bernhard Schmid, *Grundlinien der Patrologie*, 정기환 역, 『교부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컨콜디아사, 2003), 89; Alister McGrath, *Historical Theology: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소기천 외 3인 역, 『신학의 역사: 교부시대에서 현대까지 기독교 사상의 흐름』 (고양: 지와사랑, 2016), 45; Clement of Rome, “The Letter of the Church of Rome to the Church of Corinth—Commonly Called Clement’s First Letter,” ed. Cyril. C. Richardson, *Early Christian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50-52.

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왕직의 두 직분을 자신의 십자가 신학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드러내심의 '계시'를 증거한다.²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기독교론과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둘째 아담이 이룬 첫째 아담의 회복의 의미로 이를 받아들인다.³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의 중보자로서의 인격에서 논구한다.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삼중직은 첫째 아담의 회복과 관련된 구속언약 안에서 성부에 의해 주어진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있는 '참된 지식'과 '거룩'과 '의', '공의', '사랑' 등이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직분 가운데 주어진다.⁵ 아담에게 부여된 삼중직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다.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섬기고, 지키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한다. 첫째 아담의 삼중직이 청지기로서 역할을 나타내는 직분이었다면,⁶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직분은 중보자로서 첫째 아담의 '회복에 따른 값'이 그 중심을 이룬다.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안에서 조명하

2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이형기 역, 『루터의 신학』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8), 251, 306; Alister E. McGrath,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Martin Luther's Theological Breakthrough*, 김선영 역, 『루터의 신학』 (서울: 도서출판 컨플디아사, 2015), 299-302; 우병훈, 『처음 만나는 루터』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7), 102.

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II.15.2.

4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365-366.

5 Bavinck, *Reformed Dogmatics* 2, 135-137.

6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31.

는데,⁷ 특히 ‘중보자 예수’와 ‘하나님의 형벌 또는 사랑’의 교리들 사이에서 이를 전개한다.⁸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구원의 중보자로서의 인격에 관련되며 형벌에 대한 대속을 그 요체로 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점이 구속언약과 관련된 중보자의 직분에서 뚜렷이 증거된다.⁹ 이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바빙크의 이해를 고찰함에 있어서, 제2장에서는 창조회복으로서의 구원의 성격,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작정, 약속과 성취로서의 언약의 구속사적 의미를, 제3장에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 가운데서 수행된 삼중직의 특성과 범위, 제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현세적 성취의 의의와 가치를 다룬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상의 논의를 마무리한다.

2 중보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바빙크의 이해

2.1 첫째 아담의 회복의 값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인간의 타락과 관련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 대속에 따른 중보자와 당사자가 될 것이 창세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언약 된다.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성육신 가운데 이뤄질 구속언약이었다. 바빙크는 그리스도가 언약의 주가 되심을 1)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분’, 2) ‘중보적 위치에 계시는 분’, 3) ‘우리 모두의 머리’로서 세워진 분이라는 점을 들어 설명한다.¹⁰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더 좋은 언약의 머리’,

7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23-417.

8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64-368.

9 문병호, 『기독교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814.

10 Bavinck, *Reformed Dogmatics* 1, 344; 2: 423; 2:462; 3:305-306; 3:381; 우병훈, “칼빈과 바빙크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 『개혁논총』 제26권 (2013): 318.

‘은혜언약의 증보자’이다.¹¹ 첫째 아담의 직분은 청지기로서 역할이 감당되었다. 반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첫째 아담의 구속에 따른 증보자로서 위치에 선다. 즉, 첫째 아담의 형상을 회복시킬 형벌에 따른 ‘값의 무름(satisfactio)’¹²을 이루는 직분자의 위치와 역할이었다.

…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벌 역시 하나다. 이 형벌은 죄의 강도(強度)와 질적인 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형벌이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책감,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킨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류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와 의, 사랑과 은혜의 모든 완전함에 대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다. 결국 이 형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개인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인류의 머리인 둘째 아담에게 내려졌다.¹³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가지는 최종적인 완성을 첫째 아담의 회복에 두고 있다.¹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증보’라는 직분의 성질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그는 강조한다.¹⁵ 특히 그리스도가 ‘증보’하고 있는 것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위치다.¹⁶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1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117, 227.

12 문병호, 『기독교론』, 37: “주로 ‘satisfactio’를 ‘만족’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그 일차적 어의는 값에 대한 지불을 뜻한다. 그러므로 배상(賠償), 보상(補償), 속상(贖償)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문병호,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153-156; ‘무름’은 라틴어로 ‘satisfactio’라는 단어로 표기되어진다. 특히 ‘satisfactio’는 ‘빚 갚기’, ‘보석금 내기’ 그리고 ‘사죄’, ‘사과’, ‘탄원’ 등의 어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단어 속에서는 ‘만족’이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따라서 ‘무름’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공로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13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402.

14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61-364.

15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62-363.

16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판 라틴어 최종판 직역』, 문병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71.

제13장에서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심에 대해 설명할 때 신성에 따라서는 ‘자기 계시’를, 인성에 따라서는 ‘성육신’하신 분을 강조한다.¹⁷ 그리고 제2권 제15장에서는 교회의 다스림과 관련하여 주권자로서 그리스도의 중보적 위치를 설명한다.¹⁸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구속언약과 관련한 중보자의 직무 수행으로 보고 있다.¹⁹ 동일한 맥락에서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 1873-1957)는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위해 기름부음을 받은 것은 아담에게 원초적으로 부여되었던 사역과 관련된 것이라며 대속의 의를 아담의 회복을 위한 값으로 여긴다.²⁰ 이런 입장과 상반되게,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는 자신의 『교회 교의학』 IV를 통해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 선지자 직을 제사장직 안에서 논하면서 왕직을 포함한 두 직분을 ‘계시’와 ‘화해’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²¹ 그리스도의 직분론에 대한 바르트의 견해는 성부의 뜻을 ‘계시’하는 종속적 측면에서의 직분론이었다.²² 그러나 바빙크의 주장에 따르면 중보적 역할을 감당했던 그리스도의 직분에 따른 희생은 ‘값의 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만족을 채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죄와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

17 Calvin, *Institutes*, I.13.9, 11, 26.

18 Calvin, *Institutes*, II.15.3-5.

19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212-215.

20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49), 356-357.

21 Karl Barth, *Church Dogmatics: The Doctrine of Reconciliation*, ed. G.W. Bromiley · T.F. Torrance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10), IV/3-1.69, 3-15.

22 Barth, *Church Dogmatics: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I/1, 295-296, 371-372, 386, 388, 400, 466, 480-481; Barth, *Church Dogmatics: The Doctrine of Reconciliation*, IV/1, 79, 122; Eberhard Busch, *Die grosse Leidenschaft: Einführung in der Theologie Karl Barths*, 박성규 역, 『위대한 열정』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104-106, 388.

한 회복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²³ 이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신성과 인성이 이룬 ‘한 인격’ 안에서 인성에 따라서는 ‘값’을 말하지만 신성에 따라서는 ‘계시’와 ‘화해’를 위한 종속자가 아니라 ‘화해의 주’가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바빙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공의의 만족(회복의 값)을 채우는 중보적 직분수행이었다.

2.2 구원계획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바빙크에 의하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직분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세 직분뿐이다. 그 이유는 삼중직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²⁴ 그리스도의 세 직분은 구원과 관련하여 ‘창세 전’, 참 아담의 값을 위해 주어진 직분이었다. 성자를 ‘구원의 중보자’로 삼으면서 주어진 직분이다. 그리스도는 삼중직분을 ‘구속언약’이 체결되는 동시에 취하게 된다.²⁵ ‘구속언약’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체결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 체결한 언약이란 점에서 ‘은혜언약’이다. ‘은혜언약’은 대속을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행위’가 뒤따른다.²⁶

바빙크는 『하나님의 큰 일』에서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야 했던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라고 말한다.²⁷ 일반적으로 언약은 쌍방에 대

23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45.

24 Herman Bavinck, *Magnalia Dei*, 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 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322.

25 Joel Beeke & Mark Jones, *A Puritan Theology: Doctrine for Life*, 김귀탁 역,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281, 288.

26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103; 106; 140; 174; 227; Berkhof, *Systematic Theology*, 295; 우병훈, “데이빗 디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83.

27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323.

한 ‘약속’, ‘합의’, ‘규정’, ‘결정’ 등을 근거로 한다. 하나님과 첫째 아담 사이에 맺었던 행위언약에는 아담이 ‘영생할 수 있도록’이라는 내용과 함께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상반된 내용이 실린다. 이런 언약의 행위에는 삼중직의 직분에 따른 직무 수행이 있었다. 따라서 언약을 어긴 아담의 행위는 직무에 대한 유기가 성립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 있었으며, 생명에 대한 ‘사망의 값’이 있었다. 이때 동시에 발동된 ‘구속언약’은 더 이상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었다.

은혜는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수반하고 있다.²⁸ 바빙크는 『개혁 교의학』 제3권에서 ‘타락한 세상’을 다룬다. 그리고 제1장에서 ‘죄의 기원’을 논하면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어떤 행위의 결론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두 번째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인간이 행위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대신하는 더욱 좋은 은혜 언약을 대신하셨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주셨다. 죄의 속성과 의도에 상반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여기도록 죄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세우고 강화시켜준다.²⁹

바빙크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28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205, 215.

29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65.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수행이 은혜언약을 맺어가는 사역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은혜는 기계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동된다. 행위언약의 당사자가 아담이었다면, 은혜언약은 아담이 그리스도로 바뀐 것을 말한다. 이때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의 완전함을 담고 있는 둘째 아담이 된다.

바빙크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은혜언약의 증보자’, ‘새로운 인류의 머리’로 증거한다. 그는 구속언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보증인’과 ‘머리’의 관점으로, 은혜언약에서는 ‘증보자’의 관점에서 비취 본다. 『개혁 교의학』 제3권의 ‘은혜언약’에 의하면 “구속언약은 은혜언약으로 확대된다.”³⁰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구원과 은혜 교리 모두를 내포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다.

... 따라서 은혜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구상하고 확정하셨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유지하고, 구현하셨다. ... 은혜언약은 인간을 죽이거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 인간의 무능을 제거하며, 인간의 의지를 죽이지 않고, ... 인간이 갱신되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한다. 은혜언약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인간의 희생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익을 위해 선언되고, 전인의 재창조에서 깨달은 의식과 회복된 자유에서 그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다.³¹

특히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은혜 교리는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of Rome, 35-110)를 비롯한 교부들과³²

30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226-229.

31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230.

요한 크리소스툼(John Chrysostom, 349-407)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상이었다.³³ 여기에 대해 바빙크 또한 자신의 『개혁 교의학』 제4권에서 동의하고 있다.³⁴ 이런 바빙크는 『개혁 교의학』 제3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수반한 ‘죄의 기원’과 ‘은혜언약’에 따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중보사역을 증거한다.

2.3 예언의 성취와 삼중직분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따른 직무 수행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성취에서 찾는다.³⁵ 그는 “복음의 말씀은 모두 구약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개혁 교의학』 제1권 ‘교의학에 대한 서론’에서 ‘교의 신학의 방법과 구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밝힌바 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인류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한다.³⁶ 구약성경은 크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세

32 Clement of Rome,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29; Richardson ed. *Early Christian Fathers*, 50-51; Geoffrey W. Bromiley, *Histor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서원모역, 『역사신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62-63; Gregory of Nyssa, “The Person of Christ,” 133.

33 John Chrysostom, *The Homilies of S. John Chrysostom, on the Epistle of St.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ed. John Henry Parker (London: Oxford, 1848), 286-305, 307-312; John Chrysostom,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and Homilie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of S. John Chrysostom*, ed. John Henry Parker (London: Oxford, 1848), 103-107; 조윤호, “요한 크리소스툼의 사상에 나타나는 창조 회복에 따른 그리스도의 직분론 이해,” 『개혁논총』 제49권 (2019): 176-179.

34 Bavinck, *Reformed Dogmatics* 4, 187: “Grace remained primary, and faith was still considered indispensable for salvation. In certain ecclesiastical authors, such as Clement, Ignatius, Tertullian, Ambrose, and Augustine, and even more in the liturgical prayers, one encounters striking testimonies to the abundance of God’s grace and the unmerited forgiveness of sins.”

35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242-245; 364-367.

36 Bavinck, *Reformed Dogmatics* 1, 62; 65.

직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창세기 3장 24절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에 따르면 아담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쫓겨남’이다. 반면 창세기 3장 23절의 “그를 내보내어”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언약의 성취를 통한 직분의 회복과 연결된다.³⁷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세 가지 점이 예언의 성취와 함께 강조된다. 첫 번째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강조된다. 특히 창세기 4장 26절,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의 장면, 창세기 8장 20절의 ‘노아의 번제단’,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의 ‘아브람의 제단’ 등이 제사장의 모습을 그려낸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대·소선지서를 중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이 강조된다. 세 번째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중심으로 왕의 직분이 강조된다. 바빙크에 의하면 “구약 시대의 특별계시는 오실 그리스도의 역사”였다.³⁸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은 아담의 박탈당한 삼중직의 회복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회복될 것을 제시한다.³⁹ 칼빈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언의 성취와 관련해 “우리를 대신한”, “우리를 위한” 직분이란 것을 강조한 바 있다.⁴⁰

바빙크는 “구약의 왕직은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의 그림자였으며, 그리스도의 왕직에서 본질적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밝힌다.⁴¹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에 따르면, 구약에 비취진 삼중직의 모습은 아담에 의해 상실되었던 삼중직의 회복을 예고하는 그림자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기

37 조운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1), 361.

38 Bavinck, *Reformed Dogmatics* 1, 344.

39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65-366.

40 Calvin, *Institutes*, II.15.1-6.

41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65-366.

에 대해 완전한 회복을 일으킨 예언의 성취자다.⁴² 바빙크는 그리스도가 직분 수행을 통해 이룬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 수행을 아담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중보사역으로 본다.⁴³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언을 성취하고, 참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⁴⁴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룬 지상 사역에서 멈추지 않는다. 하늘에서 삼중직에 따른 권세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 사역을 비취낸다. 이런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분명히 대속에 따른 직분이었다. 그리스도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고 있다.⁴⁵ 교회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행해지는 장소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통해 성취한 것을 나누는 은혜의 장소며, 예언의 성취를 이뤄내는 장소가 된다.⁴⁶

3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 가운데 수행된 삼중직

3.1 위격적 연합 가운데 신성과 인성에 따라 이룬 삼중직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의 회복을 일으킬 둘째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완전하게 성립되어야 한다. 1) 완전한 참 아담이 되어야 한다. 2) 죄 없는 상태의 아담이 되어야 한다. 이미 구속언약에서도 언급된바 신성이

42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Inter-Varsity Press, 2016), 624-629.

43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224.

44 Bavinck, *Reformed Dogmatics* 4, 279.

45 Bavinck, *Reformed Dogmatics* 4, 437.

46 Bavinck, *Reformed Dogmatics* 4, 443-444.

인성을 취한 성육신만이 이런 완전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때 신성이 인성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만이 가능했다.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 가운데 창조 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중보적 위치에 놓여 있는 성자 하나님에 의해 이뤄진다.⁴⁷

성자의 위격이 인성을 취해 ‘한 인격’을 이룬다. 그리고 성자는 완전한 둘째 아담으로 ‘혈’과 ‘육’만이 아니라 아담의 직분을 완전하게 담아내는 위격적 연합을 이룬다. 위격은 외적 관계와 함께 내적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외적 관계에 있어서 제1위가 성부이며, 제2위는 성자이고, 제3위는 성령이다. 그리고 내적 요소에 있어서 제1위 되시는 성부는 계획과 명령을 수반한다. 제2위 성자는 성부의 뜻을 펼쳐나가는 중보적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제3위가 되시는 성령은 실행의 역할을 감당하는 속성을 가지며, 모든 것을 성자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취하게 된다.⁴⁸

바빙크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대속의 중보자, 화해의 중보자로써 성부에 의해 창세 전부터 선택되었으며, 교회의 머리로도 예정된다.⁴⁹ 그는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을 다루면서 “진실로 하나님이며, 동시에 진실로 인간인 한 분”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위격적 연합의 상태를 이룬 것은 성육신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이루는 사역이 있다는 것을 피력한다.⁵⁰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이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이루어야 할 이유는

47 Bavinck, *Reformed Dogmatics* 2, 306-308, 342.

48 Bavinck, *Reformed Dogmatics* 1, 399.

49 Bavinck, *Reformed Dogmatics* 2, 403-404.

50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254-255, 285-286; 문병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따른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기독교 강요』에 개진된 칼빈의 이해의 고유성,” 『개혁논총』 제39권 (2016): 48.

다음과 같다. 1) 인성에 따른 삼중직분의 연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연적이다 2) 삼중직분의 완전한 순종을 이끌어가기 위해 필연적이다 3) 대속을 이루는 중보자로서 삼중직분의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 필연적이다. 바빙크는 그리스도가 지니는 삼중직분의 위치를 중보자로서 신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인성에 따라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중보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 그 속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성자로서 가진 것과는 다른 영광과 다른 권세를 가진다. 그 능력 가운데 그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유효한 원인이 아니라도 구적인 원인이 된다. 만일 중보자를 예배하는 근거가 그의 신성 외에 그의 중보자 신분에 놓여 있다면 그 근거는 사실상 그의 인성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보자 그리스도는 이 인성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¹

만약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위격적 연합을 이루지 않은 상태로 삼중직의 사역을 이룬다면 인성의 연약성에 의해 삼중직은 넘어짐을 당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그리스도의 죽음은 공생애를 이루지 못한, 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⁵² 바빙크는 참된 중보자의 사역은 모든 것이 ‘신인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강조한다.⁵³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 상태에서 신성은 아담이 완전한 대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치에 선다. 첫째 아담의 무너진 삼중직분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위격적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중보적 삼중직분은 인성의 연약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무너짐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51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18.

52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318.

53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08.

3.2 ‘한 인격’ 안에서의 속성교류에 따른 삼중직 수행

바빙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의 교리를 설명할 때, 두 본성은 연합을 이루고 있으며, 상호 간에 침투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내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속성교류를 말한다.⁵⁴ 그리스도의 사역은 신인양성이 위격적 연합을 이룬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속성교류로 이루어진다. ‘예수’가 구원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 직분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증보적으로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⁵⁵

두 본성에 따른 속성의 교류는 ‘한 인격’에 전달되어 나타난다.⁵⁶ 그리스도가 회당에서 삼중직의 사역을 감당하며 귀신을 쫓아낼 때였다. 이때 왕적 직분에 따른 권능의 명령과 함께 말씀의 선포에 따른 선지자 직분이 기록을 이끌어내는 제사장 직분과 함께 동시에 작동한다.⁵⁷ 삼중직분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속성의 교류를 일으키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로 나타난 것이다. 병을 치료하는 공생애 사역과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 또한 마찬가지다.⁵⁸

그리스도가 일으킨 공생애 사역 가운데 어느 한 직분의 모습이 부각되었다고 해서 다른 두 직분을 희석시켜 버려서는 안 된다.⁵⁹ 그리스도가 직분을 수행해나갈 때, 직분의 사역은 각각의 모습으로 나누거나 시차를 두듯이 행해지지 않는다. 속성의 교류를 통해 본질적으로 동시에 수행된다.

54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09.

55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67.

56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08.

57 문병호, 『기독교론』, 791.

58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40-341, 366-368.

59 W. A. Visser't Hooft, *The Kingship of Christ*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8), 16-17.

이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따른 사역은 바빙크가 주장하고 있듯이 ‘한 인격’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 사역은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을 회복시키는 ‘재창조’인 창조회복을 근본으로 한다.⁶⁰

바빙크는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자리를 대신할 때, 증보자로서 첫째 아담이 파괴하고, 수행하지 못한 것을 회복시키고 완성한다”⁶¹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을 이룰 때, 삼중직분은 ‘한 인격’ 안에서 증보자로서 속성교류를 이루며 그 사역을 감당한다. 이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 대속의 교리가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이를 통해 아담의 형상의 회복으로서의 구원의 특성이 강조된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루는 제사장 직분을 왕적 직분의 부가물로 여기는 소시누스파(Socinians)의 견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⁶²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2문에서부터 제18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형벌에 따른 공의의 값과 함께 은혜를 수반할 수 있는 길이 의로우신 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표방된다.⁶³ 성자 하나님께서 증보자로서 우리의 당사자가 되어 형상회복에 따른 대속을 이루셨음이 강조된다. 그리고 제45문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역할이 ‘창조회복’에 있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조명한다.⁶⁴ 동일한 맥락에서, 바빙크는 대속 사역을 그리스도의 독립적인 한 요소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그리

60 Bavinck, *Reformed Dogmatics* 4, 694.

61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215.

62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47-348.

63 Zacharias Ursinus,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ed. G.W. Williard (Columbus, Ohio: Olive Tree Communications, 2004), 163-202.

64 Ursinus,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429-443.

스도의 대속 사역이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직분별로 나뉘질지라도 모든 것들의 실행은 세 직분이 함께 이룬 사역의 결론으로 보고 있다.⁶⁵

… 그러나 승천할 때 그분은 영화로운 육체를 얻고, 왕, 주와 하나님으로 높여졌다. 이와 같이 그분은 자신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든 환난에서 붙들어주시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불멸의 상을 제공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분이 행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왕적 직분이며,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의 대제사장적 직분이다.⁶⁶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제사장 직분에 따른 대속만을 말하지 않는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이 하나가 되어 대속을 이루며 이를 성취한다. 바빙크의 주장처럼 대속은 증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 직분이 하나를 이루어 “인류가 가졌던 관계처럼 그리스도가 보증과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의, 그분의 율법의 관계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⁶⁷

3.3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의 삼중직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은 권위와 권능을 앞세우는 직분이라기보다 대속에 따른 회개와 용서를 이끌어내는 증보적인 직분에 더 가깝다.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위엄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자이신 그리스도는 창조의 증보자이며, 재창조의 증보자가 된다.⁶⁸ 창조에 있어서

65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47-351.

66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47-348.

67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402.

68 Hans Burger, *Being in Christ*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9), 91-93; 이신열, “갈변의 유비(analogy) 이해”, 『갱신과 부흥』, 17 (2017), 43-44.

중보자는 권위와 권능을 드러내고 있었다면, 재창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보는 권위와 권능에 있어서는 고유하되 삼중직에 따른 순종을 수반하고 있다. 바빙크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직분’과 ‘사역’에 따라 선지자, 스승, 제사장, 주의 종, 양, 왕, 영광의 주 ...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⁶⁹ 특히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중보자와 관련된 직분으로서 신성과 인성에 따른 ‘두 본성’의 사역을 이룬다. 이때 신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인성의 연약성을 도와 대속의 완전함을 이끌어낸다.⁷⁰ 그리고 인성에 있어서 아담의 완전한 값으로 삼중직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리스도가 아담의 완전한 값을 이뤄갈 때 그 모습은 둘로 비춰진다. 첫째 아담에게 부여되었던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에는 능동적인 사역과 수동적인 사역의 두 요소가 나타난다.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대체로 능동적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다. 창세기 1장 28절의 ‘다스리라’에 대한 왕적 직분과 창세기 2장 15절의 ‘경작하며’에 해당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청지기로서 아담의 사역이 능동적인 모습을 취하게 된다. 반면 창세기 2장 15절의 ‘지키다’와 관련된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측면에서 순종을 나타내며, 복종에 따른 수동적 의무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바빙크는 『개혁 교의학』 제1권에서 선지자 직분의 사역을 주로 수동적 사역으로 분류한다.⁷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사역에 비춰 선지자의 사역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서 그 모습을 찾는다.

그리스도는 아담이 완전히 걸어야 했던 길의 시작에 우리를 두지 않고, 마

69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62-363.

70 존 칼빈, 『칼빈성경주석 16: 공관복음 II』,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연구원, 2012), 359-360.

71 Bavinck, *Reformed Dogmatics* 1, 335.

지마에 우리를 둔다. 그리스도는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능동적 순종도 성취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책과 형벌에서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즉시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의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⁷²

…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의 겸손이나 죽음에 그치지 않고 그의 전적인 순종인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스도는 이 사역을 자신의 삼중직분 안에서 이뤄갔으며, 우리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며, 사랑을 촉구하는 선지자로서만이 아니라 제사장과 왕으로 이 일을 성취했던 것이다.⁷³

그리스도의 사역은 대속을 이룬 죽음에만 있지 않다. 여기에는 능동적 순종이 있으며, 수동적인 순종이 중보적 삼중직분 가운데 새겨 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직분의 박탈을 그리스도는 공생애 전과 공생애 후로 나누어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이뤄낸다. 특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이르는 장면은 수동적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십일의 금식은 아담의 직분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모습을 담아낸다. ‘사십’은 창세기 6장의 죄악에 따른 홍수 심판의 ‘사십일’을 상기시킨다(창 6:1-7:12 참조). 그리고 ‘사십’은 시내산에 올라 ‘사십일’을 금식했던 모세를 기억하게 한다.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이를 세 직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준행하는 수동적 순종에 따른 사역과 함께 성부의 뜻을 이루는 능동적 사역이 함께 예고 된다.⁷⁴

바빙크는 ‘금식’을 가리켜 “스스로 지는 형벌”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리

72 Bavinck, *Reformed Dogmatics* 2, 573.

73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45.

74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44-345, 367-368; 조윤희,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252, 261, 266; Louth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Old Testament I*, ed. Thomas C. Oden (Illinois: IVP, 2001), 140: 토리노의 막시무스(Maximus of Torino, 380-466)는 ‘사십일’을 “죄인들의 사악함을 없애고, 의로움을 보존하는 세례” 즉, ‘세례의 예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스도가 행한 금식은 형벌적 요소에서 멈추지 않는다. ‘회개’를 담고 있다. ‘회개’는 회복과 치료가 뒤따르는 참회의 성격을 가진다.⁷⁵ 그의 주장처럼 그리스도는 대표성을 가진다. 이런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가진 ‘사십일’의 금식은 대표성으로서 회복을 이끌어내는 참회를 공식적으로 나타낸다. 반면 공생애를 통한 사역에서는 수동적 순종과 함께 능동적 순종이 중심을 이루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낸다. 능동적이며, 수동적인 모든 사역들이 세 직분의 완성된 사역을 이끌어간다.⁷⁶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세 직분을 불순종에 따른 값으로만 보지 말고, 죄인들을 위한 ‘죄의 용서’와 ‘회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길 ‘그리스도의 사역의 교리’에서 밝힌다.⁷⁷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이 구별되지만 중보적 사역의 측면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논하는 바빙크의 견해가 녹아들어 있다.

4 삼중직에 따른 창조회복: 재창조로서의 구원

4.1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과 공의에 대한 창조회복

첫째 아담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곧 아담의 본성을 회복시키는 창조회복을 의미한다.⁷⁸ 바빙크는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와 재창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⁷⁹ ‘인간의 운명’을 논하면서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한 형

75 Bavinck, *Reformed Dogmatics* 4, 134-136

76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44-345, 367-368.

77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40-345.

78 조윤희, “요한 크리소스톰의 사상에 나타나는 창조 회복에 따른 그리스도의 직분론 이해,” 171, 174, 176.

79 Bavinck, *Reformed Dogmatics* 2, 29.

상의 파괴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통해 회복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⁸⁰ 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대속은 어떤 보편적인 규칙이나 일반적인 법칙으로 해설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⁸¹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이룬 대속은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전체 직분을 통해 이루어지며,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에 대한 창조회복의 전체를 담아내고 있다.⁸² 바빙크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⁸³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고 “하나님 보시게 좋았더라”가 새겨져 있다. 그러니 재창조는 또 다른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타락 이전 아담으로의 창조회복을 의미한다.⁸⁴ 바빙크는 이것을 ‘기존의 것의 갱신’으로 표현하고 있다.⁸⁵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고 “창조 세계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⁸⁶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관련한 교리가 ‘창조회복’의 측면에서 기독교론 가운데 다뤄진 것은 16세기 신학 또는 최근의 결과물이 아니다. 교부들의 신학에서 다양하게 그 시작을 이루고 있었다.⁸⁷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삼중

80 Bavinck, *Reformed Dogmatics* 2, 587-588.

81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406.

82 Bavinck, *Reformed Dogmatics* 2, 274, 391, 423.

83 Herman Bavinck, *Christelijke Wereldbeschouwing*, 김경필 역, 『기독교 세계관』(군포: 다함, 2020), 84.

84 문병호, 『기독교론』, 535; 문병호, “신학의 원리(principia theologiae): 헤르만 바빙크와 아브라함 카이퍼의 계시 이해,” 『개혁논총』 제54권 (2020): 34-35.

85 Bavinck, *Reformed Dogmatics* 2, 532.

86 Bavinck, *Reformed Dogmatics* 1, 56.

87 Origen, “The Atonement,” ed. Henry Bettenson, *The Early Christian Fat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24; *Comm. in Matthaeum*, xvi. 8: 오리제네스(Origen, 185-254)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마귀에게 지불하는 ‘인질의 몸값’에 따른 ‘배상설(ransom theory)’로 논한다; Gregory of Nyssa, “An Address on Religious Instruction,” ed. Edward R.

직은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본래의 모습으로 그 가치를 회복시킨 창조회복이다.⁸⁸ 여기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7문은 그리스도가 공생애 사역을 통해 고난받으신 것은 구원의 회복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⁸⁹ 첫째 아담의 불신과 불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무너뜨렸다면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따른 중보자로서의 직분 수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회복시킨다.⁹⁰

거룩과 공의는 다른 것으로 출발하지 않는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⁹¹ 바빙크는 율법과 도덕적

Hardy, *Christology of the Later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299-300: 닛사의 그레고리우스(Gregorius of Nyssa, 335-394)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지배자인 마귀에게 드릴 노예된 자로서의 ‘몸값’으로 말한다; Ambrose, “Letters 40 and Letters 41: The Synagogue at Callinicum,” ed. S. L. Greenslade *Early Latin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242: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37-397)는 채무자로서의 변제에 따른 그리스도의 죽음을 논한다; Anselm, *Cur Deus Homo*, ed. Sidney Norton Deane (Chicago: Open Court Publishing Company, 2005), I.V, 13; David N. Bell, *Many Mansions: An Introduction to the Development and Diversity of Medieval Theology*, 이은재 역, 『중세교회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243; Louis Berkhof,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박문재 역, 『기독교 교리사』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174-182: 안셀무스(Anselmus, 1033-109)는 종전의 신학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Cur deus homo*)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속상적 개념’을 거론한다: ‘법정적 만족을 채우는 값’을 논하는 속죄론을 통해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삼중직의 모습을 나타낸다;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44: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원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을 ‘죽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바빙크에 따르면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전반적인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 값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 조윤희,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70-71.

88 Clement of Alexandria, “The Work of Christ,” ed. Henry Bettenson, *The Early Christian Fat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74; Beeke & Jones, *A Puritan Theology*, 345-346; 조윤희,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66, 384, 395-396, 401, 440, 518.

89 Ursinus,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394

90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367-368.

91 John Charles Ryle, *Holiness*, 장호준 역, 『거룩』 (서울: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09), 103-133.

계명을 구원계시의 원리와 원인으로 보고 있다.⁹²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서 공생애를 통해 계명을 지켜·준행함으로써 거룩과 공의를 이루며 “하나님 보시기에 보았더라”를 만들어간다. 그리스도가 공생애 기간에 일으켰던 두 번의 ‘성전정화’ 사건은 공의를 세우고, 거룩을 이끌어가는 장면이었다.

아담의 불신과 불순종이 “죄를 세상에 도입하게 되었다”⁹³ 그러나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증보자로서 획득한 ‘생명’과 ‘의’는 아담을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를 회복시키는 원인이 된다.⁹⁴ 이때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은 삼중직을 통한 둘째 아담의 순종의 걸음으로 맺은 결론이었다. 바빙크는 이것을 가리켜 “아담 안에 있는 본래의 창조로부터의 회복”이라고 말한다.

… 첫째 아담 안에서 타락했던 인류는 둘째 아담 안에서 회복되었다.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인류와 세상의 유기체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백함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고, 아담의 원래 창조물에서 유래한 ‘유기체의 구조’ 역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⁹⁵

“아담은(첫째 아담) 좋은 것을 부패시켰고, 그리스도는 부패한 것을(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야기된 것) 회복시키고, 완전하게 했다.”⁹⁶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증보자로서 삼중직에 따른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과 공의에 따른 창조적 구조를 회복시킨다. 첫째 아담의 삼중직이 직무에 따른 유기로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대해 죄악

92 Bavinck, *Reformed Dogmatics* 2, 216-221, 557-562.

93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42.

94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84.

95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231.

96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406.

의 문을 열었다면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따른 직무 완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원리의 구조를 회복시킨다.

4.2 하나님 형상의 온전한 회복에 따른 재창조 속의 창조회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따라 아담에게 삼중직이 주어진다. 그러나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Wolfhart Pannenberg, 1928-2014)는 창조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진화적 요소에서 발견한다.⁹⁷ 그는 인간학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화해론의 중심에서 논하고⁹⁸ ‘만유재신론’에서 주장되는 진화적 발생요소에 주목하면서 바르트처럼 ‘계시적 관점’에서 삼중직을 설명한다.⁹⁹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바빙크는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이며, 모든 후속적 계시의 시작이

97 Wolfhart Pannenberg · Hans-Dieter Mutschler, *Gott, der Mensch und die Wissenschaft*, 여상훈 역, 『신 인간 과학-우주 생명 정신을 주제로 한 석학들의 대화』(서울: 도서출판 썩크스마트, 2018), 32-33; Wolfhart Pannenberg, *Theologie Und Philosophie*, 오성현 역, 『신학과 철학 I』(서울: 도서출판 중문화사, 2019), 178-185; Wolfhart Pannenberg, *Systematische Theologie*, 신준호 · 안희철 역, 『판넨베르크 조직신학 II』(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220-254.

98 Pannenberg, *Systematische Theologie II*, 746-772, 766; Wolfhart Pannenberg, *Jesus-God and Man*, trans. Lewis L. Wilkins · Duane A. Prieb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7), 137-139, 221; Christoph Schwöbel, “Wolfhart Pannenberg,” in *The Modern Theologian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류장열 외 3인 역, 『현대 신학과 신학자들』(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302.

99 Pannenberg, *Systematische Theologie II*, 220-254; Pannenberg, 『신학과 철학 II』, 127-133; John Webster, “Providence,” in *Mapping Modern Theology: A Thematic And Historical Introduction*, ed. Kelly M. Kapic · Bruce L. McCormack, 박찬호 역, 『현대신학 지형도』(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380.

자, 기초”라고 말하고 있다.¹⁰⁰ 그리고 창조를 ‘하나님의 자기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한 일을 기쁨으로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좋았기 때문이다”(창 1:31).¹⁰¹

안토니 후크마(Anthony A. Hoekema)는 바빙크의 견해를 함께 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² 인간의 피조목적과 특성을 ‘형상’이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다. 바빙크는 아담을 통해서도 창조를 설명하고 있으며,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재창조를 반영하고 있다.¹⁰³ 아담의 창조가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은 재창조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하나님 형상의 온전한 회복으로 인한 창조회복에 대한 기쁨이었다.

재창조는 피조세계의 본질에 대한 회복을 말한다. 첫 번째 아담이 가졌던 삼중직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선한 본질을 죄로 덮어버린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이런 피조세계를 왕적 권세와 말씀의 양식이 함께하는 선지자 직분과 거룩을 앞세운 제사장의 직분으로 회복시킨다. 구원 사역을 고려할 때 재창조는 새로운 실체의 도입이 아니다.¹⁰⁴ ‘씻어냄’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으로 인한 창조회복에 따른 새로움이다. 바빙크는 재창조를 언약의 교리와 함께 구원론으로 연결한다.

100 Bavinck, *Reformed Dogmatics* 1, 307.

101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28.

102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67-68.

103 Bavinck, *Reformed Dogmatics* 4, 33.

104 Bavinck, *Reformed Dogmatics* 4, 92.

그리고 재창조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위격에서 찾으며, 이것을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의 열매로 본다.¹⁰⁵ 그 사역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에 따른 것으로, 삼중직과 관련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재창조의 전체, 죄의 결과로 허물을 짚어진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과 인류의 완전한 회복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이다. 객관적으로, 원칙적으로 정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에 의해 이 재창조를 성취했던 것이다.¹⁰⁶ ... 이 재창조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세상 사이에 가져왔던 화해에서 첫 번째 원칙과 기원을 가지고 있다.¹⁰⁷

바빙크는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이룬 삼중직의 완성을 그리스도가 이룬 재창조의 교리 가운데서 설명한다. 재창조를 삼위일체의 외적 사역에서 조명할 때, 특히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재창조를 구원론과 연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회복과 관련하여 아담의 온전한 회복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회복에 따른 기쁨을 그려낸다.¹⁰⁸ 여기에 대해 후크마 또한 『구원론』을 통해 바빙크와 동일한 견해를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¹⁰⁹

105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276, 379-380.

106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451-452.

107 Bavinck, *Reformed Dogmatics* 3, 454.

108 Bavinck, *Reformed Dogmatics* 2, 588.

109 Anthony A. Hoekema, *Saved by Grace* (Grand Rapids: Eerdmans, 1994), 54-67.

4.3 삼중직이 이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

바빙크는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이론 삼중직의 완성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는 대속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이다. 세 번째는 지상에 있는 자신의 교회를 선지자와 제사장, 왕적 활동을 통해 하늘에서 다스리는 현재적 통치다.¹¹⁰ 칼빈 또한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의한 삼중직의 계속적 수행을 강조한다.¹¹¹ 바빙크는 삼중직에 따른 현재적 통치가 교회 안에서 ‘교도권’과 ‘통치권’, ‘자비의 권세’로 나타난다는 것을 『개혁 교의학』 제4권에서 조명한다.¹¹²

1) ‘교도권’은 선지자 직분과 관련된다.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증거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지혜’와 ‘지식’, ‘예언’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도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값으로 산 신자들을 통해 증거되는 현재적 통치로써 말씀에 따른 공적봉사를 이어가고 있다.¹¹³

2) ‘통치권’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자신의 교회를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다스리는 왕적 직분과 관련된다. ‘통치권’은 교회 내의 모든 지도와 돌봄을 포함한다. 특히 ‘통치권’은 신자들이 서로에 대해 실천하는 것으로, 은사와 직분을 통해 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해방신학에 대해 징검다리를 놓았던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 그리스도의 왕직을 강조하면서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이끄는 행동하는 해방이란 변혁을 주장한다.¹¹⁴ 그러나 바빙크의

110 Bavinck, *Reformed Dogmatics* 4, 388.

111 문병호, 『기독교론』, 932.

112 Bavinck, *Reformed Dogmatics* 4, 389-440.

113 Bavinck, *Reformed Dogmatics* 4, 418-421.

주장은 세속적인 권세의 다스림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섬김이 강조되는 ‘통치권’으로, ‘목양의 사명’과 연결된다.¹¹⁵

3) ‘자비의 권세’는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다. 그리스도께서 질병 가운데 놓여진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고, 약한 자들을 회복시킨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사명을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승천 후에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 이와 같이 바빙크는 그리스도가 성취한 삼중직의 현재적 통치를 교회의 각각의 직분자들을 세워 그 실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증거한다. 예를 들면 선지자 직분은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으로, 왕적 직분은 다스리는 ‘장로’의 직분으로, 자비와 봉사에 따른 제사장 직분은 ‘집사’에게 부가되었다고 본다.¹¹⁶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삼중직을 성취한 삼중직의 현재형을 나타내고 있다.¹¹⁷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고, 섬기고, 자비를 베푸는 삼중직의 현재형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역이 무너진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바빙크는 ‘교회론’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고유한 기원, 본질, 활동 및 목적을 갖고 존재한다. ... 따라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 존재해야 할 관계는 우선적으로 유기적, 도덕적, 정신적 성격을 지닌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 그리스

114 Jürgen Moltmann, *Ethik der Hoffnung*, 광혜원 역, 『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89-94; Jürgen Moltmann, *Theologie der Hoffnung*, 이신건 역, 『희망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223-246, 354-363; Jürgen Moltmann,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이신건 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288-289.

115 Bavinck, *Reformed Dogmatics* 4, 421-427.

116 Bavinck, *Reformed Dogmatics* 4, 427-429.

117 이신열, “교회의 속성에 대한 개혁신학적 이해: 은사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제34권 (2015): 171-172.

도는 직분들과 기관들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다스린다. ... 마지막으로 교회는 정부가 처벌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도 고유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처벌로 만족하지만 교회는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¹¹⁸

바빙크는 증보자로서 둘째 아담의 삼중직을 구속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인 교회론으로 이끌어간다. 증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아담의 회복인 창조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 창조회복은 단회적인 한 번의 기회로 만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화 과정의 지속성을 가지는 효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는 이런 면에 있어서 증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교회론으로 연결시켜 지속성을 이끌어낸다.

5 나가면서

바빙크는 증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을 구속언약과 함께 기독교론적이고, 구원론적 관점에서 전체를 파악하고, 설명해나간다. 여기에 대해 그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증보적 삼중직을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한다. 하나는 낮아짐을 통해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에 따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각시킨다. 또 다른 하나는 완전한 아담의 직분에 따른 값이다. 이것은 대속에 따른 회복의 값을 통해 구속언약에 따른 은혜언약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창조회복을 돌아보게 한다. 특히 바빙크는 증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교회론과 연결하여 그리스도가 이룬 삼중직의 완성이 현재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그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빙크가 삼중직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은 그의 『개혁 교의학』

118 Bavinck, *Reformed Dogmatics* 4, 435-438.

제3권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개혁 교의학』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관련한 것을 ‘구속언약’과 ‘하나님 형상의 회복’, 그리고 ‘재창조’ 등과 연관하여 논한다. 이런 가운데 증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기독론과 구원론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 관점을 돌아보게 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저버린 행위는 반드시 그 값이 따른다는 것을 돌아보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를 돌아보게 한다. 삼중직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가 증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기계적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반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증거하는 창조회복을 돌아보게 한다.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담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아담의 죄가 무너뜨렸다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증보적 삼중직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키는 창조회복을 불러일으킨다.

바빙크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가 증보자로서 삼중직을 통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교회를 통해 창조회복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부각시킨다. 이것은 그의 신학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증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약의 확신을 더욱 분명하게 가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 문병호.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 _____. 『기독교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 _____.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따른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기독교 강요』에 개진된 칼빈의 이해의 고유성.” 『개혁논총』 제39권 (2016): 27-56.
- _____. “신학의 원리(principia theologiae): 헤르만 바빙크와 아브라함 카이퍼의 계시 이해.” 『개혁논총』 제54권 (2020): 9-46.
- 신준호(편). 『칼 바르트 교회교의학 해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이신열. “칼빈의 유비(analogy) 이해.” 『갱신과 부흥』. 17 (2017): 38-68.
- _____. “교회의 속성에 대한 개혁신학적 이해: 은사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제34권 (2015): 153-183.
- 우병훈. “칼빈과 바빙크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 『개혁논총』 제26권 (2013): 297-331.
- _____. “데이빗 덕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개혁논총』 제34권 (2015): 63-112.
- _____. 『처음 만나는 루터』.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7.
- 조윤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1.
- _____. “워필드의 ‘The Higher Life’ 성화 교리에 대한 비판.” 『갱신과 부흥』 Vol. 21 (2018): 151-187.
- _____. “요한 크리소스톰의 사상에 나타나는 창조 회복에 따른 그리스도의 직분론 이해.” 『개혁논총』 제49권 (2019): 153-195.
- 칼빈, 존. 『칼빈성경주석 1: 창세기 I』.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연구원, 2012.
- _____. 『칼빈성경주석 16: 공관복음 II』.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연구원, 2012.
- _____. 『기독교 강요: 1559년판 라틴어 최종판 직역』. 문병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 Alexander, Desmond. *From Eden to the New Jerusalem*. 배용덕 역.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 Althaus, Paul.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이형기 역. 『루터의 신학』.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8.
- Ambrose. “Letters 40 and Letters 41: The Synagogue at Callinicum.” Edited by S. L.

- Greenslade *Early Latin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Anselm. *Cur Deus Homo*. Edited by Sidney Norton Deane. Chicago: Open Court Publishing Company, 2005.
- Barth, Karl. *Church Dogmatics: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I/1*. Edited by G.W. Bromiley · T. F. Torrance.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10.
- _____. *Church Dogmatics: The Doctrine of Reconciliation IV/1*. Edited by G.W. Bromiley · T. F. Torrance.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10.
- _____. *Church Dogmatics: The Doctrine of Reconciliation IV/3-1*. Edited by G.W. Bromiley · T. F. Torrance.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10.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1*.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 _____. *Reformed Dogmatics 2*.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 _____. *Reformed Dogmatics 3*.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 _____. *Reformed Dogmatics 4*.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 _____. *Magnalia Dei*. 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 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_____. *Christelijke Wereldbeschouwing*. 김경필 역. 『기독교 세계관』. 군포: 다함, 2020.
- Beeke, Joel & Jones, Mark. *A Puritan Theology: Doctrine for Life*. 김귀탁 역.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 Bell, David N. *Many Mansions: An Introduction to the Development and Diversity of Medieval Theology*. 이은재 역. 『중세교회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49.
- _____.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박문재 역. 『기독교 교리사』.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 Bromiley, Geoffrey W. *Histor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서원모 역. 『역사신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 Burger, Hans. *Being in Christ*.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9.
- Busch, Eberhard. *Die grosse Leidenschaft: Einführung in der Theologie KarlBarths*. 박성규 역. 『위대한 열정』.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 Edited by John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Chrysostom, John. *The Homilies of S. John Chrysostom. on the Epistle of St.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Edited by John Henry Parker. London: Oxford, 1848.
- _____.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and Homilie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of S. John Chrysostom*. Edited by John Henry Parker. London: Oxford, 1848.
- Clement of Alexandria. “The Work of Christ.” Edited by Henry Bettenson. *The Early Christian Fat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Clement of Rome. “The Letter of the Church of Rome to the Church of Corinth—Commonly Called Clement’s First Letter.” Edited by Cyril. C. Richardson. *Early Christian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Edited by Cyril. C. Richardson. *Early Christian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Fesko, John V. *Last Things First: Unlocking Genesis 1-3 with the Christ of Eschatology*. 김희정 역. 『태초의 첫째 아담에서 종말의 둘째 아담 그리스도까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 Gregory of Nyssa. “An Address on Religious Instruction.” Edited by Edward R. Hardy. *Christology of the Later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he Person of Christ.” Edited by Edward R. Hardy, *Christology of the Later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Inter-Varsity Press, 2016.
- Hamilton, Victor.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enesis 1-17*.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 I』.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 Hoekema, Anthony 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 _____. *Saved by Grav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 Hooft, W. A. Visser’t. *The Kingship of Christ*.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8.
- Kelly, J. N. D.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 Louth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Old Testament I*. Edited by Thomas C. Oden. Illinois: IVP, 2001.
- McGrath, Alister. *Historical Theology: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소기천 외 3 인 역. 『신학의 역사: 교부시대에서 현대까지 기독교 사상의 흐름』. 고양: 지와

- 사랑, 2016.
- _____.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김선영 역. 『루터의 신학』. 서울: 도서출판 컨콜디아사, 2015.
- Middleton, J. Richard. *The Liberating Image*. 성기문 역. 『해방의 형상』. 서울: SFC 출판부, 2010.
- Moltmann, Jürgen. *Ethik der Hoffnung*. 곽혜원 역. 『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_____. *Theologie der Hoffnung*. 이신건 역. 『희망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_____.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이신건 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Origen. “The Atonement.” Edited by Henry Bettenson. *The Early Christian Fat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Pannenberg, Wolfhart. *Jesus-God and Man*. trans. Lewis L. Wilkins · Duane A. Prieb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7.
- _____. *Systematische Theologie*. 신준호 · 안희철 역. 『판넨베르크 조직신학 I · II』.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_____. *Theologie Und Philosophie*. 오성현 역. 『신학과 철학 I. II』. 서울: 도서출판 종문화사, 2019.
- Pannenberg Wolfhart · Mutschler Hans-Dieter. *Gott, der Mensch und die Wissenschaft*. 여상훈 역. 『신 인간 과학-우주 생명 정신을 주제로 한 석학들의 대화』. 서울: 도서출판 핑크스마트, 2018.
- Ryle, John Charles. *Holiness*, 장호준 역. 『거룩』. 서울: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09.
- Schmid, P. Bernhard. *Grundlinien der Patrologie*. 정기환 역. 『교부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컨콜디아사, 2003.
- Schwöbel, Christoph. “Wolfhart Pannenberg.” In *The Modern Theologian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류장열 외 3인 역. 『현대 신학과 신학자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Ursinus, Zacharias.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Edited by G.W. Williard. Columbus Ohio: Olive Tree Communications, 2004.
- Walton, John H.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enesis*. 김일우 · 전광규 역. 『NIV 적용주석 시리즈- 창세기』.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 Webster John. “Providence.” In *Mapping Modern Theology: A Thematic And Historical*

Introduction. Edited by Kelly M. Kopic · Bruce L. McCormack. 박찬호 역.
『현대신학 지형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Wenham, Gordon J. *World Biblical Commentary : Genesis 1-15*. Colombia: Word Incorporated, 1987.

국문초록

조윤희

그리심교회 담임목사, 조직신학

헤르만 바빙크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에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 직분이 주어지게 된다. 이 삼중 직분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은 아담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구속 언약에 근거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 되며,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게 된다.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첫째 아담의 회복을 위한 둘째 아담으로서의 사역이었다.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능동적이며,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때 순종은 ‘한 인격’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증거한다.

바빙크는 아담의 형상회복을 말할 때 고난과 함께 순종 그리고 죽음을 ‘무름’으로 함께 설명한다. 그리고 성취에 대한 답을 중보자되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 조명하고 있다. 이때 여기에서 부각되는 것이 형상회복에 따른 창조회복이다. 바빙크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 몇 가지 교리적인 입장을 강조한다. 첫째는 구속언약이며, 두 번째는 기독교론이며, 세 번째는 구원론이다. 그리고 교회론을 통해 삼중직의 현재적 통치를 그는 설명하고 있다.

주제어: 바빙크, 삼중직, 구속언약, 둘째 아담, 창조회복

Herman Bavinck's Understanding of Threefold Office of Christ the Mediator: Focusing on Salvation as Restoration of Creation

YounHo Jo

Senior Pastor, Gerizim Church, Systematic Theology

According to Hermann Bavinck, in relation to our salvatio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Son of God was given the threefold offices of 'king', 'prophet' and 'priest'. These threefold offices represented Christ as Mediator. The threefold office of Christ was based on the covenant of redemption to accomplish the restoration of Adam. Here, Christ becomes the second Adam and accomplishes the atonement of the first Adam. The public life of Christ, the mediator, was the work of the second Adam for the restoration of the first Adam. Bavinck explains the public life of Christ through active and passive obedience. At this time, he testifies that obedience takes place in 'one person'.

When Bavinck speaks of the restoration of Adam's image, he explains suffering, obedience, and death as 'satisfactio.' And the answer to this fulfillment is illuminated through the threefold ministry of Christ as the mediator. And the answer of accomplishment is illuminated through the threefold office of Christ as the Mediator. At this time, what is highlighted here is the restoration of creation through the restoration of image. Bavinck emphasizes several doctrinal positions through the threefold office of Christ the Mediator. The first is the covenant of redemption, the second is Christology, and the third is soteriology. And through ecclesiology, he explains the present reign of the threefold office.

Key Words: Bavinck, Threefold Office, Covenant of Redemption, Second Adam, Restoration of Creation